자연물 관찰 표현하기

개발자	지경미(설악산생태탐방원)_응용
그림 그리기 기술보다 자연물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통해 풍부한 시선, 다른 관점으로 자연을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연물에 정성을 다하도록 한다. 평상 시 쉽게 지나쳤던 자연물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자연물에 대해 모르던 사실을 이해하여 향후, 자연물을 접했을 때 잘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결과와 상관없이 자연물을 관찰하고 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. 또한 현장에서 실물을 직접 보고 보이는 그대로 그리기 때문에 끈기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을 수 있다.	
활용대상	초등학생(고학년) 이상
활용시기	사계절
준비물	스케치북, 수채화물감, 붓, 팔레트, 물통, 연필, 지우개, 드로잉펜, 휴지 등
소요시간	2시간 이상
제작비용	없음



	
운영사진_관찰 방법 소개	운영사진_채색하기(색관찰)

운영방법

1. 프로그램 소개
2. 관찰하기 연습
3. 선의 맛 살리기 연습
4. 자연물 준비하기
5. 스케치 및 펜선 그리기
6. 채색하기
7. 관찰기록 남기기
8. 뒷정리하기

향후방향

운영 대상층에 따라 상황에 맞는 해설을 함께 진행한다.

- 생태계 이야기, 숲의 천이 과정 이야기 등 자연 전체에 대한 이야기
- 계절별 자연의 형태와 색에 맞는 감성적인 이야기
- 도토리는 왜 둥글게 생겼는지, 단풍잎은 왜 날개처럼 생겼는지 등 자연에 대한 이야기(관찰한 뒤에 이해도가 높아진다)

참고내용

※계절별 자연의 형태와 색에 맞는 감성적인 이야기
(여름-초록-생기-활발-에너지/가을-갈색-차분함-희생)

주의사항

- 자연물은 이미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. (잎이 말라버려 형태가 변할 수 있다) 부득이하게 살아 있는 자연물을 가져오는 경우,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.
- 너무 단순한 형태의 자연물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.